

From: kimbyung

Sent: Wednesday, November 25, 2009 8:26 AM

Subject: FW: **골프라는 운동**



골프 라는 운동

도대체가 무슨 것이 골프 라는 운동 이다!
가만히 생각할 수록 정말 기도 안차는 것이다.
운동 같지도 않은 것이 하고 나면 즐겁기나 하나,

친구 간에 우정 이 돈독 해 지기를 하나,
열은 열 대로 받고, 시간은 시간 대로 날아 가고,
돈은 돈 대로 들고 하니 말이다.

어디 그 뿐이라? 공 한개 값이면 자장면 곱배기 가 한
그릇인데 물에 빠트려도 의연한 체 허허 웃어야지...

인상 쓰면 인간성 의심 받기 마련이고 자장면 한 그릇을
물에 쏟아 놓고 웃어 보라 아마 미친놈 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수 같은 골프 채는 무슨 금 딱지가 붙었는지
우라지게 비싸지...
드라이버 랍시고 작대기 하나가 33 인치 평면 칼라 TV
값과 맞먹고...

비밀 병기 랍시고 몇 십만원 짜리 오늘 좋다고 사 놓으면
내일은 구형 이라고 새로 사야지...



풀밭 좀 걸었다고 드는 돈이 쌀 한가마 에다가 그나마 한번
치려면 실력자 를 동원 해야 부킹 되고

노는 산 깎아 골프장 만들어도 좁은 땅에 만든다고 욕 먹고,
나무 심고 잔디 심어 키워 놔도 농약 친다고 욕 먹고,

여름이라 햇볕 피 할수 있나,
겨울 이라고 누가 따스하게 손을 잡아 주나,

땡별 눈 보라는 고사하고, 제대 한지가 언제 인데 특 하면

산등성이 에서 각개 전투,
미친개도 아닌데 물만 보면 피해 다녀야 하고,

공이 갈만한 자리는 무슨 심술 로 모래 웅덩이 를 파놓고,
Hole 은 꼭 처녀 엉덩이 꼭 그거 같은 곳에다 코구멍 만
하게 뚫어 놓았으니...

잘 맞으면 일 안하고 공만 쳤다고 욕먹고, 안 맞으면 운동
신경 없다고 욕 먹고, 퍼팅이 싹 들어가면 돈독 올랐다고
욕먹고, 못 넣으면 소신 없다고 욕먹고,



길면 쓸데없이 힘 쓴다고 욕먹고, 짧으면 쫄았다고 욕먹고.
돈 몇푼 따면 굶배기로 밥 사야 하고,

돈 잃으면 밥 안 사주나 눈치 봐야 하고, 안 맞아서 채라도
한번 집어 던지면 상종 못할 인간 으로 찍히고,

신중 하게 치면 느장 플레이 라고 욕먹고,
빨리 치면 출싹 댄다고 욕먹고,

화려 하게 입으면 날라리 라고 욕먹고, 정잡게 입으면 초상집
왔냐고 욕먹고, 인물 좋으면서 잘치면 제비 같은 놈이라고
욕먹고,

인물 나쁘면서 공도 못치면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욕먹고, 농담 하면 까분다고 욕먹고, 진지 하면 열 받았냐며
욕먹고,

도우미 하고 농담 하면 시시덕 댄다고 욕먹고, 농담 하지 않으면
분위기 망친다고 욕먹고,

새채 사서 잘 치면 돈이 썩어 난다고 욕하고,
새채 안사면 죽을 때 돈 싸 가지고 갈거냐고 욕먹고,



Buyer 가 공 치자고 해서 외국에 채 가지고 나가면 남의 눈총
받고, 그나마 몇번 하고 나면 세무 조사 한다 고 겁주고...

선물로 받은 채 들고 들어 오면 무슨 밀수 끈 처럼
짜려 보고,
새벽 골프 나가면 그렇게 공부 좀 하 지 하고 욕먹고,

남녀 어울리면 바람 났다고 욕먹고, 남자들 끼리만 치면 호모
농들 이라고 욕먹고,

이글, 흘린원 한번 하면 축하는 못할 망정 눈 들이 퍼래 가지고
뜬어 먹고, 잘 쳐도, 못 쳐도, 자주 쳐도, 안쳐도,

새 채로 쳐도, 헌 채로 쳐도, 새벽에 쳐도, 낮에 쳐도, 비올때
쳐도, 눈 올때 쳐도, 시끄럽게 쳐도, 조용히 쳐도, 천천히 쳐도,
빨리 쳐도, 멀리 쳐도, 짧게 쳐도, 돈내고 쳐도,
접대 받아 쳐도, 우째든지 욕을 먹게 되어 있는

이런 빌어먹을 골프 를 왜 하느냐 이 말이다 !
정말 공치는 사람 들이 전부 제 정신 이란 말 인가?

곰곰히 생각 해 봤는데... 욕 먹기도 지쳤고, 돈 쓰기도 아깝고,
이제 골프 를 확 끊어 버리고, 골프채 도 만지지 않아야 겠다...

요담에 칠 때 까지만 이라도~~!

